

자아상태 검사와 LCSIJ검사와의 관계

박 원 모 김 진 수 윤 성 혜 천 성 문[†]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자아상태 검사와 LCSIJ(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검사 간의 상관연구를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한 중·고등학생 873명을 대상으로 자아상태 검사와 LCSIJ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와 여자 간에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5개의 자아상태 하위요인 모두에서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계와 전문계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를 제외한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전문계 집단에서는 NP(Nurturing Parent)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FC(Free Child)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A(Adult), AC(Adapted Child), CP(Critical Parent)순으로 평균이 M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P의 경우 도전성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성 및 신중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용성과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FC와 NP가 동시에 높은 M형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지만 논리적인 전개가 부족한 다정다감한 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아상태 검사와 LCSIJ 성격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검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자아상태 검사, LCSIJ 성격검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천성문,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Tel: 051-663-4328, E-mail: smcheon@ks.ac.kr

청소년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사회적인 독립을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 등 정서를 공유하며,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하고, 사회적 유능감과 나아가 자존감을 얻게 된다(김정민, 이정희, 2008; 서주현, 유안진, 2001).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가치감을 발달시키게 되므로(Rogers, 1961; Sullivan, 1953) 이들에게 또래관계는 삶의 과정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이해, 타인이해, 나아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이해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해이다(Berne, 1961).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자신의 자아상태 구조와 심적 에너지의 양과 형태를 알아보는 것이다(杉田峰康, 1989). 청소년들이 자아상태 검사를 통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성격상의 불균형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아상태란 각자의 자아상태에 결부되어 있다고 추측되는 심적 에너지의 양을 표현한 것으로서, 첫째, 개인의 성격 내에 잠재해 있는 힘, 둘째, 성격의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2가지 면에서 성격을 유추해 행동을 수정해 가는 기능분석 방법이

다. 이는 각각의 자아상태 각 부분끼리의 관계와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의 양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Dusay, 1972).

자아상태는 교류분석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개인성격의 구조들로서 감정 및 사고, 이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을 말한다(Berne, 1964). 자아상태는 아버지(Parent: P), 어른(Adult: A), 어린이(Child: C) 세 가지 자아상태가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는데, 세 가지 자아상태마다 고유한 사고, 행동 및 감정을 나타내며, 이들 세 가지 자아상태가 인간의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 이를 기능에 따라 과거 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들이 했던 방법을 모방하여 남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비판하는 비판적 아버지 자아(Critical: CP), 부모가 보여준 행동을 본받아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온정과 지지와 격려를 표현하는 양육적 아버지 자아(Nurturing: NP)로 나뉜다. 그리고 어머니 자아(Adult)는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 자료처리,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하며, 어린이 자아(C)는 개인 속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자발적 충동적 정서를 표현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ree Child: FC)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압하고, 착한 아이라는 평을 받아내기 위해 기능하는 순응적인 어린이 자아(Adapted Child: AC)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말과 행동은 자아상태 즉 마음속이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속을 진단할 수 있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의미와 이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자

아상태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인식의 폭을 증진시키게 하고, 타인에 대한 인식도 높임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아활용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해준다(정정웅, 1986). 또한 자신의 자아상태를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상태와 비교해 보고, 자신의 성격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Dusay, 1977).

자아상태 검사의 이러한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자아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우재현, 1994; 이병래, 1996; 제석봉, 2002; 吉内一浩 외, 2000; Brennan & McClenaghham, 1978; Dusay, 1972; Loffredo, Harrington & Okech, 2002; Loffredo, Harrington, Munoz, & Knowles, 2004; Loffredo & Omizo, 1997; Williams & Williams, 1980).

그러나 우재현(1994), 제석봉(2002)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Brennan와 McClenaghham(1978)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수렴타당도(converge validity)를 확인 할 수 없다. 또한 Williams와 Williams(1980)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점점 받았다고 하였으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신뢰도 계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유일한 척도인 우재현(1993)의 검사의 경우에도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거나 타당화를 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상태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박원모와 천성문(2008)은 Berne(1966)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상태의 5가지 하위개념들

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과 요인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 3차에 걸친 검사개발 과정을 통하여 자아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였다. 박원모와 천성문(2008)은 그들의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의 5개의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가 모두 .80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아상태 검사와 자기에 검사, 자아상태 검사와 충동성 검사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박원모와 천성문(2008)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상태의 평균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상태 검사와 LCSIG 성격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봄으로써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검사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LCSIG(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성격 검사는 Jung과 Myers-Briggs의 이론(Myers, McCaulley, Quinck, & Hammer, 1998), Eysenck의 3요인 이론(Eysenck & Eysenck, 1991), 5요인 이론(McCrae & Costa, 1985), 대인관계 원형이론(Wiggins, 1995)을 검토하여 MBTI의 유형론과 대인관계 2차원 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중심특성인 외향성과 친화성을 이용한 네 가지 성격유형을 구성하였다(임승환, 2003). 임승환(2003)은 이 성격유형들을 각각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도전성은 외향적 사고(Extraversion Thinking; ET)를, 사교성은 외향적 감정형(Extraversion Feeling; EF)을, 수용성은 내향적 감정형(Introversion Feeling; IF)을, 신중성은 내향적 사고(Introversion Thinking; IT)를 대표하며, '안정성'은 MBTI의 다른 요인과 아무런 관계

가 없는 독자적인 요인임이 밝혔다.

박제일과 임승환(2004)은 LCSl 성격검사의 타당화를 위하여 MBTI 간의 상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LCSl 성격검사의 ‘도전성’이 MBTI의 ‘사고(T)’와 관련성이 높고, ‘사교성’은 ‘외향(E)-감정(F)’과 관련성이 높았다. LCSl 성격검사의 ‘수용성’은 MBTI의 ‘내향(I) 감정(F)’와 관련성이 높고, ‘신중성’은 MBTI의 ‘판단(J)’와 관련성이 높으나, ‘사고(T)’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MBTI검사와 LCSl 성격검사는 서로 비슷한 구인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아상태 검사와 LCSl 성격검사와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전혀 없었지만 LCSl에서 측정하는 외향(E)-감정(F), 직관(N)-인식(P)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검사인 MBTI와 자아상태 검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여러 편 있었다(김소영, 1997; 남경숙, 1995; 배영미, 2001; 서준석, 2001; 이병래, 1998). 이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라 자아상태 기능 점수를 비교하였지만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성과 자아상태 검사를 비교해 보면 사고형(T)들의 경우 CP(Critical Parent: 비판적 아버지)와 A(Adult: 어른)가 높고 감정형(F)들의 경우 NP(Nurturing Parent: 양육적 아버지)와 FC(Free Child: 자유로운 어린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MBTI의 심리 선호 경향성 중에서 T와 F의 경우 자아상태 검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아상태 검사와 LCSl 검사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MBTI의 심리 선호 경향성 중 하나인 T와 비슷한 개념인 LCSl의 신중성은 자아상태

의 CP, A와, F와 비슷한 개념인 LCSl의 사교성은 NP, FC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전성은 CP와 FC, 수용성은 AC(Adapted Child: 순응적인 어린이)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아상태 검사와 LCSl 검사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CSl 성격검사의 5요인과 자아상태 검사의 5요인 간의 상관연구를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의 5요인이 LCSl 성격검사의 5요인에 의하여 설명되어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자아상태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론적 배경

자아상태 검사

자아상태란 각자의 자아상태에 결부되어 있다고 추측되는 심적 에너지의 양을 그림 1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첫째, 개인의 성격 내에 잠재해 있는 힘, 둘째, 성격의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2가지 면에서 성격을 유추해 행동을 수정해 가는 기능분석 방법이다. 이는 각각의 자아상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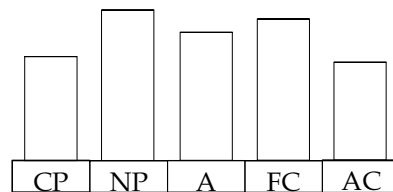


그림 1. 이고그램

부분끼리의 관계와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의 양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Dusay, 1972).

이것은 Dusay(1972)가 Berne(1966)의 교류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5가지 자아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검사로 개발하였다. 이고그램은 교류분석에 기초한 자기분석 방법이다. 이고그램은 성격의 움직임을 P, A, C로 분류해서 각각이 정신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마다 독특한 프로파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을 통해 자기 성격의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우재현, 1994; 이병래, 1996; 제석봉, 2002; 吉内一浩 외, 2000; Brennan & McClenagh, 1978; Dusay, 1972; Loffredo et. al., 2002; Loffredo et. al., 2004; Loffredo & Omizo, 1997; Williams & Williams, 1980). 이들 중 가장 먼저 자아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개발한 사람은 Dusay(1972)로서, 그는 인간의 심적인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이고그램(egogram)을 만들었다. Dusay이후에도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거나(우재현, 1994; 제석봉, 2002),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수렴타당도(converge validity)를 확인 할 수 없고(Brennan & McClenagh, 1978),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신뢰도 계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Williams & Williams, 1980).

이에 비하여 Loffredo 등(2002)은 좀 더 객관

적인 방법으로 자아상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일부 요인의 문항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자아상태 검사 개정판(The Ego State Questionnaire-Revised: ESQ-R)(Loffredo et al., 2004)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요인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김진미, 2006; 송현중, 1998; 이병래, 1996) 이들 연구 역시 요인분석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송현중, 1998),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진미, 2006; 송현중, 1998; 이병래, 199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자아상태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요인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아상태의 각 하위영역들이 Berne(1964)이 제안한 자아상태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유일한 척도인 우재현(1994)의 검사의 경우에도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거나 타당화를 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다(박원모, 천성문, 2008).

이러한 자아상태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박원모와 천성문(2008)은 Berne(1966)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상태의 5가지 하위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과 요인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 3차에 걸친 검사개발 과정을 통하여 자아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였다. 박원모와 천성문(2008)은 그의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가 5개의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가 모두 .80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 자기에 검사와 충동성 검사와의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그가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LCSI 성격검사

LCSI(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성격검사는 이론적으로 정상인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Jung과 Myers-Briggs의 이론(Myers, McCaulley, Qunnk, & Hammer, 1998), 특성론의 근간이 되는 Eysenck의 3요인 이론(Eysenck & Eysenck, 1991), 1980년 이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5요인 이론(McCrae & Costa, 1985),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의 두 차원을 근간으로 개발된 대인관계 원형이론(Wiggins, 1995)을 검토하여 MBTI의 유형론과 대인관계 2차원 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 중심특성인 외향성과 친화성을 이용한 가설적인 네 가지 성격유형을 구성하였다(임승환, 2003). 여기서 대인관계 영역의 요인인 외향성과 친화성을 유형론적 관점으로 보면 외향(Extraversion) - 내향(Introversion)차원과 사고(Thinking) - 감정(Feeling)의 차원이다. 그에 따라 2차원의 조합에 의한 4가지 유형(ET, EF, IF, IT)이 대인관계 중심의 성격유형 체계로서 개인의 환경적응 방식이나 대인관계 양상과 관련된 성격, 행동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제일, 임승환, 2004). 그리고 임승환(2003)은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의 5가지 구인을 설정하였다. 도전성은 외향적 사고(ET)를, 사교성은 외향적 감정형(EF)을, 수용성은 내향적 감정형(IF)을, 신중성은 내향적 사고(IT)를 대표한다. LCSI 성격검사의 5요인 '안정성'은

정상인들을 위한 성격측정도구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역으로 문항을 수정하고 '안정성'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LCSI 성격검사는 대인관계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5가지 특성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격검사가 소홀히 하였던 정상인들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고 건강한 성격영역과 부적응적인 성격영역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형론에 기초한 심리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척도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임승환, 한종철, 2003).

자아상태 검사와 LCSI 성격검사

박제일과 임승환(2004)은 LCSI 성격검사와 MBTI 간의 상관연구를 통해 LCSI 성격검사의 타당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LCSI 성격검사의 '도전성'이 MBTI의 '사고(T)'와 관련성이 높고, LCSI 성격검사의 '사교성'은 MBTI의 '외향(E)-감정(F)'과 관련성이 높지만, '직관(N)-인식(P)'과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LCSI 성격검사의 '수용성'은 MBTI의 '내향(I) 감정(F)'과 관련성이 높고, LCSI 성격검사의 '신중성'은 MBTI의 '판단(J)'와 관련성이 높으나, '사고(T)'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MBTI검사와 LCSI 성격검사는 서로 비슷한 구인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아상태 검사와 LCSI 성격검사와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LCSI에서 측정하는 외향(E)-감정(F), 직관(N)-인식(P)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검사인 MBTI와 자아상태 검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여러 편 있었다(김소영, 1997; 남경숙, 1995; 배영미, 2001; 서준석,

2001; 이병래, 1998). 이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라 자아상태 기능 점수를 비교 하였지만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성과 자아상태 검사를 비교해 보면 사고형(T)들의 경우 CP와 A가 높고 감정형(F)들의 경우 NP와 FC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MBTI의 심리 선호 경향성 중에서 T와 F의 경우 자아상태 검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자아상태 검사와 LCSIG 검사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MBTI의 심리 선호 경향성 중 하나인 T와 비슷한 개념인 LCSIG의 신중성은 자아상태의 CP, A와, F와 비슷한 개념인 LCSIG의 사고성은 NP, FC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LCSIG의 나머지 하위들인 도전성, 수용성, 안정성도 자아상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LCSIG의 나머지 하위요소들과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전성은 목적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역경에 대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강인한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객관적인 비판을 잘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고, 승부욕이 강하다. 따라서 이 도전성은 주장적이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하고,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바른 것으로 여기고 양보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1인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Bruno, 1983) CP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나 어른들의 반응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내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적극적, 자발적, 행동적이며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한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FC는 좋고 싫은 것이 명확하며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도전성은 자아상태의 하위요소인 CP, FC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수용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배려하려는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남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주로 듣는다. 이에 비하여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소인 AC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압하고, 착한 아이라는 평을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AC는 소극적이고, 순종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용성은 자아상태 검사의 AC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에 소재한 중학교 5개와 고등학교 5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아상태 검사와 LCSIG 성격유형검사 각 100부씩 총 1,0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945부의 설문지 중에서 무성 의하게 응답한 72부를 제외한 873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자아상태 검사와 LCSIG 성격유형검사를 10명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2007년 9월 14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설

표 1. 조사대상의 분포

빈도		계열	빈도	성별	빈도	학년	빈도
중학교	501(57.4)			남	155	1학년	157
				여	346	2학년	172
						3학년	172
고등학교	372(42.6)	인문계	184	남	183	1학년	155
		전문계	188	여	189	2학년	139
				3학년	78		
합계	873(100)		372		873		873

문지는 9월 29일 모두 회수되었다. 이들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을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35분 ~ 45분 정도였다.

측정 도구

자아상태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상태 검사는 박원모, 천성문(2008)이 개발한 검사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에 따라 비판적 아버지(Critical Parent: CP), 양육적 아버지(Nurturing Parent: NP), 어른(Adult), 자유로운 어린이(Free Child: FC), 순응적인 어린이(Adapted Child: AC)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 점수가 높을수록 피검자가 해당문항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상태 검사의 신뢰도는 CP .81, NP .83, A .82, FC .80, AC .86으로 나타났다(박원모, 천성문, 2008).

LCSI 성격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LCSI 성격검사는 임승환(2003)이 개발한 검사로 총 9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가지 성격유형과(주도형, 표출형, 우호형, 분석형)과 5가지 성격특성(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다. LCSI 성격검사의 신뢰도는 도전성 .83, 사교성 .92, 수용성 .84, 신중성 .91, 안정성 .71으로 나타났다(임승환, 200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검사와 LCSI 성격검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1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자아상태 검사 점수의 남녀 간 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과 LCSI검사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남녀 간, 중·고등학교 간, 인문계와 전문계 간의 자아상태 하위요인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 간에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5개의 자아상태 하위요인 모두에서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계와 전문계 간에는 5개의 자아상태 하위요인 모두에서 평균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각 집단별로 자아상태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N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A, FC, AC, CP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전문계 집단에서는 N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FC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A, AC, CP순으로 평균이 M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자아상태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 3, 4와 같다.

표 2. 남녀 간, 중·고등학교 간, 인문계와 전문계 간의 자아상태 평균의 차이

요인	남자 (N=338)		여자 (N=535)		t값	중학생 (N=501)		고등학생 (N=372)		t값	인문계 (N=184)		전문계 (N=188)		t값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CP	24.66	5.95	23.32		5.50	3.34***	23.39	5.67		24.43	5.72	-2.67**	24.20	
NP	31.09	6.34	32.04	6.02	-2.21*	31.07	5.71	32.47	6.64	-3.26**	32.59	6.54	32.36	6.76	.33
A	30.13	6.29	29.10	6.64	2.28*	29.00	6.71	30.17	6.21	-2.63**	30.51	6.11	29.85	6.30	1.03
FC	29.88	6.47	31.27	6.88	-2.97**	30.34	6.82	31.26	6.64	-2.00*	31.20	6.67	31.32	6.62	-.19
AC	28.82	7.30	26.41	7.19	4.80***	26.75	7.43	28.14	7.09	-2.79**	28.19	7.06	28.09	7.14	.1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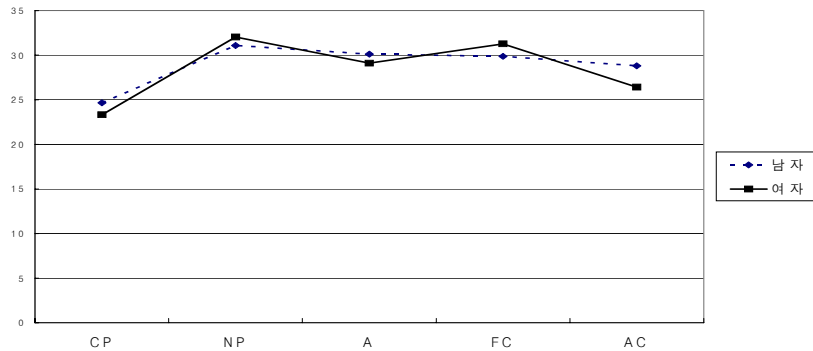


그림 2. 남자와 여자의 자아상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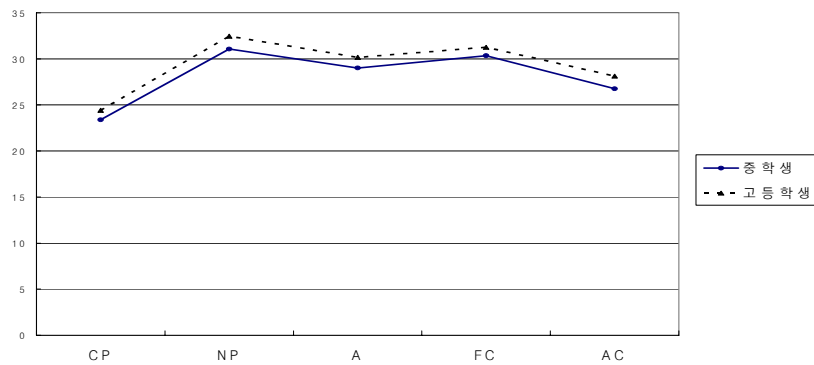


그림 3.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상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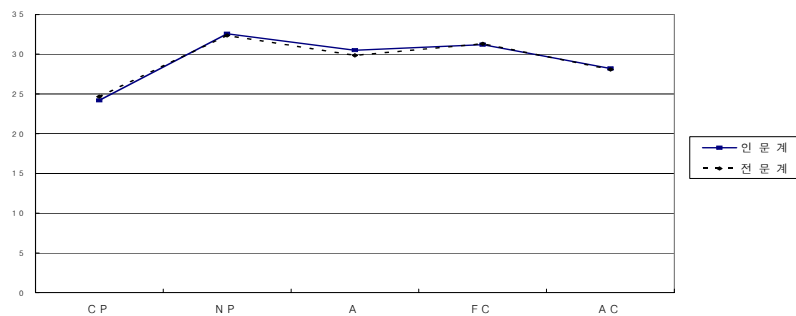


그림 4. 인문계와 전문계의 자아상태 평균

LCSI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와 LCSI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의 경우 도전성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873)=.40, p<.001$, 사교성 및

표 3. 자아상태 검사와 LCSI 검사와의 상관관계

	CP	NP	A	FC	AC
도전성	.40***	.14***	.52***	.25***	-.19***
사교성	.02	.27***	.17***	.07*	-.52***
수용성	-.20***	.34***	.10**	-.07*	.35***
신중성	.00	.31***	.55***	-.24***	-.23***
안정성	-.37***	-.28***	-.26***	-.48***	-.22***

* $p<.05$, ** $p<.01$, *** $p<.001$,

신중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873)=.02, ns$;

$r=.00, ns$. 그리고 수용성과 안정성과는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873)=-.20, p<.001$; $r(873)=-.37, p<.001$.

NP의 경우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r(873)=.14, p<.001$; $r(873)=.27, p<.001$; $r(873)=.34, p<.001$; $r(873)=.31, p<.001$, 안정성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r(873)=-.28, p<.001$.

A의 경우 NP와 같이 도전성, 사교성, 수용 성, 신중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r(873)=.52, p<.001$; $r(873)=.17, p<.001$; $r(873)=.10, p<.01$; $r(873)=.55, p<.001$,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873)=-.26, p<.001$. 그런데 A와 도 전성, A와 신중성 간의 상관계수는 다른 요인 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FC의 경우에 도전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중성,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의 경우에는 수용성과는 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873)=.35, p<.001$, 도전성, 사교성, 신중성,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873)=-.19, p<.001$; $r(873)=-.52, p<.001$; $r(873)=-.23, p<.001$; $r(873)=-.22,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의 타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LCSIG 검사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와 여자 간에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5개의 자아상태 하위요인 모 두에서 평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계와 전문계 간에는 5개의 자아상 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평균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자아상태의 하 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N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A, FC, AC, CP 순 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전문계 집단에서는 N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FC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A, AC, CP순으로 평균이 M형태를 이 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FC의 평균이 A보다 높은 M자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FC 와 NP가 동시에 높은 M형은 감정이 풍부하고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지만 논리적인 전개 가 부족한 다정다감한 형이다. 또한 M형들은 언제나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잘 하며, 호기심이 왕성하고 표현력이 풍부하지 만 덜렁대고 생활 전반에 질서가 없는 결점이 있다(우재현, 2006). 그런데 우재현(2006)은 우 리국민의 자아상태의 기본형으로 NP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A이며, 세 번째로 평균이 높은 것이 FC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와 남 자의 경우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다른 집단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남자의 경우 장선심(2006)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나 권효진(2006), 서미애(1997), 양 민철(2005), 정정심(2000)에서 남자의 자아상태 가 M자형을 나타내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 과이다. 그러나 남자를 제외한 다른 집단의 경우 자아상태가 M형을 나타낸 것은 권효 진(2006), 박민경(2007), 박선이(2006), 서미애 (1997), 양민철(2005), 이선희(2005), 이지영

(1998), 정정심(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우재현(2006)이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자아상태의 기본형과 청소년들의 자아상태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의 특징 및 이 시기에 그들이 겪는 심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James와 Jongeward(1973)에 의하면 인간의 세 가지 자아상태 P, A, C는 C→P→A의 순서로 발달한다. 그런데 Dusay(1977)는 A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어야 완전하게 발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등학생의 경우 A 자아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발달되지 않아서 자아상태 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성인의 경우와 달리 M형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경우 Piaget(1972)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형식적 조작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검증해 보는 좀 더 과학자적인 사고를 말한다. 이는 추상적인 사고와 이상적인 사고 즉 자기, 타인들, 그리고 세상의 이상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 조작기 사고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처리하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지적이며, 가능성을 측정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는 A의 기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Piaget(1972)는 형식적 조작 사고는 대략 15 ~ 20세의 청소년기 후기까지도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자아상태 검사에 반영되어 성인들의 자아상태 유형과는 달리 A의 점수가 FC보다 낮은 M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FC가 A보다 높은 또 다른 이유를 청소년들

의 발달상의 특징과 FC가 측정하는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FC는 ‘순수 반항’, ‘공격적’, ‘자유방종’, ‘충동적’, ‘자기중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우재현, 2006). 그런데 이러한 FC의 특성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에서 보이는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전 청소년기의 아동들의 정서적 특징은 행복하고 낙관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할까, 좋은 친구를 가지지 못할까, 부모로부터 벌을 받을까 등으로 인한 많은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연령에서 화는 일반적인 정서이며, 다른 많은 정서보다 강하게 표현된다. 이 연령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서로는 분노와 분노를 통제하기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죄의식, 좌절 그리고 질투가 있다(Robert, 2003).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자아중심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강조된 자기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개인적 독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다. 주목되기를 원하고, 눈에 띄기를 원한다(Santrock,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자아상태의 FC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자아상태에서 FC 점수가 성인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아상태와 LCS와 상관을 살펴본 결과 CP의 경우 도전성과 .40으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성과 .02, 신중성과는 .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과는 -.20, 안정성과는 -.37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P의 경우 목적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역경에 대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강인한 속성을 측정하는 도전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친교적 속성을 측정하는 사교성과 자신을 잘 다스리고 체계적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치밀한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인 신중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을 수용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배려하려고 상대방의 의견을 주로 듣는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인 수용성이 낮을 경우에 공격적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 직선적으로 표현하며 목소리가 크고 과격하므로 수용성은 CP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또한 CP는 성격의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는 차원인 안정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NP의 경우에는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교성은 LCSJ의 하위요인 가운데 NP와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NP가 잘 발달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구원적, 보호적, 위안적, 배려적, 동정적이어서 말투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세도 수용적 보호적이므로(Bruno, 1983)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A의 경우에도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는 특히 도전성, 신중성과의 상관계수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전성은 목적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역경에 대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강인한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객관적인 비판을 잘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졌으며,

승부욕이 강한 특성을 측정하므로 A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칙과 목표에 집중하고, 체계적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치밀한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지속적인 끈기를 발휘하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 후에 일에 착수하는 신중성은 A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FC의 경우 도전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중성 및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C가 충동성이 강하므로 체계적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치밀한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으로 지속적인 끈기를 발휘하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 후에 일에 착수하는 신중성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C의 경우에 수용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전성, 사교성, 신중성, 안정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C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압하는 것으로 AC가 지나치면 비굴하거나, 응석을 부리거나, 때로는 폭발적인 공격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AC는 소극적이고, 순종하는 측면과 공포, 불안, 우울 등 불쾌한 감정이 누적되면 욕구불만이 생기고, 열등감이 나타나며, 의존적이고, 자기비하의 경향을 갖게 되어 공격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는 온순하고 이른바 ‘착한 아이’이다. AC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전성, 사교성, 신중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AC는 타인을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배려하려는 속성을 측정하는 차원인 수용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할 때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설문을 실시할 때 연구대상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설문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이 설문지 문항에 응답을 할 때 비교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수 있다. 이러한 설문 실시 방법으로 인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상태 검사와 LCSJ 성격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자아상태 검사와 LCSJ 성격검사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지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인타당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한 검사 도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 타당화를 위하여 사용된 LCSJ 검사는 비록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은 있지만 유사한 검사도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화 작업은 제한된 영역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상태가 타당한 지를 밝히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와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검사가 측정하는 구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

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효진 (2006). 부모양육태도와 기독교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연구.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1997). 사회사업 면접을 위한 내담자의 기질과 자아상태간 차이에 관한 연구: MBTI의 4가지 기질과 교류분석의 이고그램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민, 이정희 (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12(0), 115-128.

김진미 (2006). 호텔종사원의 자아상태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경숙 (1995). MBTI의 성격유형과 Ego-gram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민경 (2007). 위기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상태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이 (2006).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사용에 따른 자아상태와 가족건강성.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원모, 천성문 (2008). 교류분석 이론에 의한 중·고등학생 자아상태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999-1021.

박제일, 임승환 (2004). 대인관계 중심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5(1), 1-16.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

- 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미애 (1997). Ego-gram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서준석 (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MBTI의 4가지 심리기능과 교류분석의 Ego-Gram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중 (1998). 이코그램 유형과 대학생 생활 적응. 논문집 : 13(1), 123-135, 여수대학교.
- 양민철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재현 (1994). 교류분석(TA) 체크리스트.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2006). 교류분석(TA)에 의한 청소년 인성개발 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이병래 (1996). 자아상태 검사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 141-164.
- 이병래 (1998). 유치원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3(2), 217-241.
- 이선희 (2005).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상태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1998). Ego-gram에 나타난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과의 관계-간호사관생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6(2), 206-216.
- 임승환 (2003). LCSJ(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성격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승환, 한종철 (2003). LCSJ(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성격검사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35-56.
- 장선심 (2006).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심 (2000). 일 지역 고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웅 (1986). TA상담을 통한 인간관계개선의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2002). 참 삶과 행복을 가꾸는 TA 심리학.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吉内一浩; 山中學; 佐々木直 他 (2000). 新版TEGの開発. 交流分析研究(The Journal of Japan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25(2), 159-165.
- 杉田峰康 (1989). 臨床交流分析. 임상교류분석 (1993). 우재현 역. 대구: 정암서원.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Grove Press.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Grove Press.
- Berne, E. (1966).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organization and groups. Grove Press.
- Brennan, T., & McClenaghan, J. C. (1978). The transactional behavior questionnaire.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8, 52-55.
- Bruno, F. J. (1983). Adjustment and Personal Growth : Seven Pathways (2nd Ed.). N. Y.: John Wiley & Sons.
- Dusay, J. M. (1972). Egoagrams and the "constancy hypothe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3), 37-41.
- Dusay, M. 1. (1977). Egoagram: How I see You

- and you see me. N.Y. Bantam Press. 이고그 램 (1994). 우재현 역. 대구: 정암서원.
- Eysenck, H. J., & Eysenck, S. B. G.(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 James, M., & Jongeward, D. (1973). Born to win mass. Addison-Wesley.
- Loffredo, D. A., Harrington, R., Munoz, M. K., Knowles, L. R. (2004). The Ego State Questionnaire-Revised.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4(1), 90-95.
- Loffredo, D. A., Harrington, R., Okech, A. P. (2002). Factor Analysis of the Ego State Questionnaire.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2(1), 25-27.
- Loffredo, D. & Omizo, M. M. (1997). Difference in ego states, locus of control, and dogmatism between Afr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Loffredo,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7, 168-174.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5).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 Myers, I. B., McCaulley, M. H., Quinck, N. L., & Hammer, A. L. (1998). MBTI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Piaget, J. (1972). Intellectual evolu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Human Development*, 15, 1-12.
- Robert, E. S. (2003). Educational Psychology(7th ed). 교육심리학 이론과 실제 (2005). 강갑원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ogers, C. B.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Santrock, J. W. (2004). Adolescence(9th ed.) New York: McGraw-Hill. 청년심리학 (2004). 김현정 외 역. 서울: 박학사.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 Y.: W. W. Norton.
- Wiggins, J. S. (1995).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lliams, K. B., & Williams, J. E. (1980). The assessment of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s via the adjective checklis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2), 120-129.

원고접수일 : 2010. 06. 14.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30.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8.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0. 08. 24.

The 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Scale and LCSI Personality Test

Park, Won Mo Kim, Jin Soo Yun, Song Hea Cheon, Seong Moon

Kyungsh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Ego State Scale through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Scale and 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LCSI) Personality Tes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for 1,073 stud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ve factors of ego state which consists of CP, NP, A, FC, and AC showed difference in average between boy and girl students as well a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tudents attending general and technical high school. Girl students showed high average in NP and FC in comparison with A, AC and CP, which appear 'M' in ego gram. Second, CP showed high positive co CP showed h with challenge, no CP showed h with sociability and prudence, and negative co CP shoed h with acceptability and stability. According to these results, most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catagorized into M type with high FC and NP. Therefore, they are thought to be emotional, sensible, and warm-harted but insufficient of logical thinking. In conclusion, the 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Scale and LCSI Personality Test indicates high validity of Ego State Scale.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ossible follow-up projects a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section.

Key words : Ego State Scale, LCSI Personality Test